

민주, 선거 막판 ‘양문석 악재’에 당혹

중도층 표심 좌우하는 민감 사안 ‘노심초사’ 국힘 “민주, 투기·부동산 비리의 성지” 공격 군소정당들 전국 각지서 유권자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레이스 막바지에 터진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 악재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중도층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번 논란이 한껏 달아오른 정권 심판 여론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김부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전에 돌입한 뒤 이런 사안이 제기돼 당으로서 상당

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하고 있다.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공천 심사 당시 양 후보가 해당 자료를 당에 제출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만큼 ‘공천 취소’와 같은 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세를 거칠게 이어갔다. 박정화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

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양 후보를 엄호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편법대출이) 새마을금고의 권유로 댄다는 본인의 이야기도 있으니 신속히 조사하면 된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다고 해서 (양 후보의)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양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이어 부동산 문제까지 일으키며 총선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 모두 양 후보가 선거판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렇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양 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침묵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군소 야당들도 전국 각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오전 11시30분 여의도역부터 여의도공원, 국회의사당 인근 새로운미래 당사까지 걸어오면

서 점심시간 직장인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했다. 개혁신당은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양향자 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용인의 양 원내대표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연 뒤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지지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시 야탑역 앞 광장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을 찾아 거리 인사를 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광주를 찾았다. 윤 대표는 광주 북구 윤암도서관 건너편 노점을 돌며 상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유세 차량을 타고 광주 북구 일대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수기자



대국민 투표 참여 호소 오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일 오후 전국비상시국회의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5·6일) 등 대국민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한동훈, 총선 후 버려질 것”

마피아 발언에 “尹, 마피아 아래등급 범죄인이라 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일 4·10 총선 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총선 이후에 저희가 법안을 내면 윤 대통령 또는 친윤(친윤석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고 추측해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동훈의 자기 자백이라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또 “실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지금 방탄을 하고 있다”며 “방탄연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미 방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

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실제 아이와 부인을 건드린 사람이 누군가. 기가 좀 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마피아보다 아래 등급의 범죄인이라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선 “감옥 가야죠. 그동안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판결집 읽어보고 스캔하고 플랜크하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 되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유죄 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았지만 국법 질서를 감수하는데 그런 특권을 누리 사람들이 제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쓰레기” “머슴·계모”... ‘거친 입’에 네거티브도 격화

여야 대표가 앞장서 논란 발원... ‘지지층 결집용’ 의도된 발언 해석도 與, 野 후보 ‘부동산 논란’ 맹공... 野, ‘채상병 사건’ 與 후보에 공세

4·10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을 의식해 ‘막말 경계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대 야당의 대표들부터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비난전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시 등 지원 유세에서 부동산 의혹과 막말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들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원색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유세에서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판하던 도중 “정치 개갈이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정치인들은 우리를 지배할 권력자가 아니라 단순히 개 따지면 머슴”이라며 “머슴 얘기하니 ‘비하하는 것 아니냐’ 하던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사장까지 비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는 윤석열 정부를 “의붓아버지, 계모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발언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

명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도 점점 격렬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리로 맹공을 퍼고 있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가 주요 타깃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선대위는 매일 10건 안팎의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 위원장도 나흘 연속 수도권 유세에서 이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후보에 대해서는 2022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억여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벌린 고리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업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을 ‘사기대출’이라 몰아세우고 있다. 공 후보의 경우 현대차 임원 재직 시절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매입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 군 북무종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아빠 찬스’, ‘편법 증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후보들을 집중 공격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신범철(충남 천안갑),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가 그 대상이다.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신후

보는 국방부 차관, 임 후보는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들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 조수연(대전 서갑)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변호 이력을 문제 삼고 있고, 김해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에 대해서는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을 지내었고 성폭력 피해자 변호를 맡았다”며 공세를 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가 있다고 역공을 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에 대해 가족 법인 명의로 2021년 경기 양평에 약 80원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이사로 재직 한 신헌 등에서 대출받았으며 ‘부친 찬스’ 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장 후보가 3월28일까지 신고한 재산은 총 38억2천400만원인데, 다음날 장 후보는 6억6천만원이 늘어난 44억8천300만원으로 정정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을 가리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냐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수정(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선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해 서울 아파트 4채, 상가 3채를 소유한 사실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프리즘

이개호 “원천소득징수로 세금 체납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는 1일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원천소득 징수를 하고 있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개호 후보는 “이석형 후보가 지난 29일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마치 제가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질문을 해 제가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제는 거짓말 했다고 우기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에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후보는 또 이석형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친구 이개호의 3선을 위해 광산으로 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구를 위해 광산을 갔다면 왜 당에서 결정한 공천을 갖고 3번 단수 공천, 밀실 공천이라고 우기냐”고 반문하고 “알뉘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진수기자

이석형, 이개호 후보에 공개토론 제안

무소속 이석형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난 방송 토론의 제한된 형식, 짧은 시간으로는 중요한 지역 의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책과 비전을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이개호 후보는 또 이석형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친구 이개호의 3선을 위해 광산으로 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구를 위해 광산을 갔다면 왜 당에서 결정한 공천을 갖고 3번 단수 공천, 밀실 공천이라고 우기냐”고 반문하고 “알뉘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진수기자

권오봉 “무소속 후보 토론회 무산 유감”

무소속 권오봉 국회의원 후보(여수)는 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후보는 “여수를 선거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일하게 일간지나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무소속 후보자로서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사라졌다”며 “마지막 방법으로 토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있어야 하지만 조계원

후보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후보자가 유권자 앞에서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검증받을 공정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토론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조계원 후보의 동의 여부와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달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정진욱 “남구, 도시형 웰니스 산업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갑)는 1일 “남구를 도시형 웰니스(Wellness)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시설 및 노인 복지 인프라가 좋은 남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메디컬·웰니스 융·복합벨트 특구 지정

및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메디컬·웰니스 융·복합벨트 특구에 관련 인프라 조성과 메디컬·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AI·헬스케어·바이오산업 등과 연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강기자

전진숙 “여성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을)는 1일 “여성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여성들의 역량이 사회 발전에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여성정책 관련 공약으로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고용중단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확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틈새 없는 촘촘한

돌봄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북구여성비전센터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증진시키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미래 사회 발전 방향임을 인식하고 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백성강기자

최대집,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 공약 제시

소나무당 최대집 국회의원 후보(목포)는 1일 옥암동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 소재 기존 민간 또는 국립의료기관의 수도권 대형병원 위탁경영, 그리고 목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의사회회장을 지낸 최 후보는 지난달 10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 때부터 ‘의료전진 목포’ 개념을 제안했으며 이

를 가다듬어 목포 의료 인프라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목포는 ‘의대’보다 ‘의사’를 먼저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의 의료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기존 수도권 지역 의사들도 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의대 유치도 요원한 일입니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